

2024. 12. 4.(수) 10:00

(제28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에 대한 질문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촉구



최 승 선 의원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봉남, 황산, 금산, 신평
라 선거구 최승선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민생 현장에서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뛰는 김제, 가슴 벅찬 도전’으로
24년을 함께 진력해 온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의 박수와 더불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의료대란과 경기침체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주신
김제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김제시 도시성장계획전략 관련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속가능성을 품은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정체성은 물론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적 지표와 더불어

지자체를 넘어 국가 성장이라는
공간적 지표를 관통하는 테제입니다.

특히 도시 정비는 도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회적 약자는 물론 각계각층을 아우르는
인구 여건과 지역 특성을 반영해 성장 발전을
계측할 수 있는 준거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성장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 김제시의 도시 정비 계획은
전면 대수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지난 2008년 당시 수립한 ‘2025 김제 도시계획’을 통해
참담히 실패한 도시정책을 보여줬습니다.
당시 김제시 인구는 9.5만 명대였으나
도시 성장을 전제로 계획인구
15만이라는 인구수를 과다계상했고
당시 보고서에도 인구 증가 규모에 대한 재검토가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또한 ‘2040 김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가 진행된 바 있으며
이 역시 행자부 권고는 7만 명이었으나,
최종 10만 명으로 진행됐습니다.

달성 불가능한 인구 성장치 전망으로
공공시설을 확충해 왔고,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증가는
곧 열악한 재정 여건에 부담 요인으로 더해져
만성적인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음이 예견됐습니다.

김제시 진단조차 시설물 노후로 인한
다발적인 보수 발생 우려가 예측됐습니다.
재정 지출 관리 방안으로
공공시설 운영비 총량제 도입과
분산된 사업추진으로 인해 재정 지출 관리가 부실해졌기에
종합적 관리계획 마련은 이제 시급한 당면 과제가 됐습니다.

이에 따른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올해 수립된 김제 도시성장계획전략이
과연 현실적으로 타당한 계획이라고 보십니까?

2017년 국토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김제시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속적 축소도시’ 이자
가장 심각 단계인 고착형 도시로 분류됐고,
당시 기준 정점인구 대비
인구감소 비율은 약 61.9%에 달했습니다.
개발사업만으로 도시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실패의 최대 원인입니다.

정성주 시장님의 공약을 볼 때
김제시 도시성장 계획은 2035년 목표로
인구수 10만 명 이상을 설정했습니다.

관련 내용 중 신규 추진계획인
전주완주혁신도시 및 새만금 배후 주거는
중심 도시조차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외각인
베드타운을 구상하는 것 자체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김제시 읍면동
신규 아파트 입주민 형태를 볼 때
타지역 주민이 입주하는 것보다
내부 이동이 다수인
일명 ‘시내권 아파트 순회 유목민’ 으로 인해
하드웨어 확충에 따른 인구증대 효율은
지극히 미비합니다.

최근 국토부 연구 중
‘인공지능 기법을 적용한 소지역단위
장래인구 예측 방법론’ 등을 활용,
향후 인구 증가 및 유입 가능성을 위한
면밀하고 적극적인 정책 검토가 요구됩니다.

불과 몇 해 전인 22년 국토부에서도
현행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저성장 등 당면한 도시문제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인구 증가 및 경제성장을 전제로 한
계획으로 인해 현재 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이
어렵다는 부분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당시 대안으로 4가지가 제시되었습니다.
그 첫째로 시민 거주·생활 행태 변화를 고려해
현행 거주인구 중심 계획인구 추정 방식 개선 검토와
둘째, 인구감소·저성장 시대에 맞는 발전 전략 제시를 위해
도시계획상 새로운 도시 유형 신설을 요청했습니다.

셋째, 새로운 개발 수요에 신속 대응을 위한
장래 개발이 가능한 토지 물량(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해
단계별 배분 제도의 폐지 검토 또한 권고했고

넷째, 지자체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범위 확대 검토도 제시됐습니다.

과연 이번 도시기본계획에 이러한 요소를
모두 반영한 것인가는 여전히 의문스럽습니다.

토지이용 전환 방법은 해당 지역 맞춤형 재편성과
장기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인구감소 도시 맥락에 맞는 전환 방식을
다시 모색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질의 사항입니다.

도시성장계획전략보다 축소된 인구에 맞게
과잉 공급된 공공시설과 민간택지시설 기능별 재배치를 포함한
‘적정규모화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불완전함이 진단되거나 가능성에 대한 방향성 진단에
오류가 있다면 회생을 위한 방향키를
빠르게 전환하는 정책적 접근만이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빠른 판단과 정책적 대응이 없이는
과오가 반복될 수밖에 없고 더욱
침체의 늪으로 빠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입니다.

부정확한 결과로 무작정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유보된 기대이자 미래를 담보로
만기된 과거를 연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도시 인프라 최적화는 물론,
그 안에 담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다각화,
창업 생태계 조성, 주거지 품질과 거주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기후 변화에 따른
에너지 효율을 감안해 도시계획에
친환경 측면의 도시계획 또한
염두에 두고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장님의 구체적인 복안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김제시 인구성장 특화 계획은 무엇이며
특화 정책 제안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김제시 인구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범시민기구 구성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 관 정 협의체 구성 제안을 했음에도
정책 변화가 없어 유감스럽습니다.

인구절벽 방지를 위해
인재 고도화를 위한 방책 발굴과
정주인구 증가책 중 하나인
김제형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출범을 기약했던
각종 축제 전담 재단법인 설립도
조속히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관계 인구 증가책으로
지평선물 이용자 및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시
사은품 대신 김제사랑상품권 제공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해외의 경우, 인구성장을 위한 소도시 성공 사례로
캐나다 퀘벡주 셔브룩은
교육 및 연구기관으로 경제구조를 강화했고,

미국 미네소타주 로체스터는
통합의료서비스인 메이요 클리닉 등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인구성장을 이뤘습니다.
호주 라운세스턴은 관광으로,
일본 후쿠오카시는 스타트업과 창업 생태계 조성으로
인구 유입과 경제성장을 이끌었습니다.

해외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과거 산업단지 개발과 기업 유치 중심의 전략은
인구 증가 유입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중심을 맞추고
살기 좋은, 진심 살아보고 싶은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난제해결사로 불리는 시장님께서
진정 시정을 위한 로드맵이 무엇인지
심사숙고를 통한 세부적인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